

중소기업 "의장등록출원 열풍"

□ 특허청(청장 김광립)에 따르면 기업의 상품 디자인 개발 지표라 할 수 있는 의장등록출원이 97년말 IMF사태 직후인 98년 25,155건에서 2001년말 기준 38,500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98년에 비해 53.1%나 증가한 것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자, 유제품, 담배 등 제조식품 및 기호품이 281%, 의류 및 악세서리 등이 78.4%, 침구, 실내장식품, 조리용기기 등

생활용품이 72.4%, 가구, 조명기구, 주방설비용품 등 주택설비용품이 94.4%, 디지털 TV 등

전기전자 및 통신기계기구가 3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일반기계기구, 자동차 등

운수기계, 산업기계기구 등은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쳤음.

□ 이는 21세기 디지털시대에는 소비자의 욕구가 기능적인 만족을 뛰어넘는 감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과자, 의복 등 패션제품, 가구, 조명기구, 주방설비용품, 휴대폰 등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중소기업의 의장등록출원은 1998년 6,140건에서 2001년 10,617건으로 '98년에 비해 무려 72.9%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대약진은 특허청이 IMF사태 이후 시장수요의 절대적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

체에게 신제품의 디자인 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이를 의장등록을 통하여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소기업지재권강기운동을 꾸준히 전개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전국 순회 지식재산권 설명회 개최
- 심사관-중소기업 자매결연사업
- 중소기업에 대한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 최근까지 디자인개발 사업을 통해 성공을 거둔 대표적 중소기업으로는 범한공업(주), 뉴본산업(주), (주)부방테크론, 에센시아(주) 등을 들 수 있음.

○ 욕실용 악세서리를 주로 생산하는 범한공업(주)은 기존의 단순한 욕실용품을 유럽풍의 세련되고 고급화된 스타일로 디자인을 개발하여 1년간 5억 6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회사가 현재 보유중인 의장권은 75건이나 되고 현재 17건을 출원중임.

○ 분유케이스(계량기)를 생산하는 뉴본산업은 수유시마다 스푼으로 계량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외출시 휴대가 간편하도록 편리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99년 3월 상품 판매 7개월만에 3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매출신장율이 300%에 이르렀고 프랑스 등 5개국으로 수출중임. 현재 이 회사가 보유중인 의장등록은 17건이며 현재 8건을 특허청에 출원중임.

○ (주) 부방테크론은 밥솥하면 떠오르는 둥근 모양의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라운드형의 미려한 디자인과 주부들로 하여금조작하는데 편리하도록 큼직하고 시야에 바로 들어오는 기능 버튼으로 대형컨트롤부를 갖는 압력보온밥솥을 개발하여 판매개시 8개월만에 24억 5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하

였음. 현재 이회사가 보유중인 의장등록은 12건이며 2건은 출원중임.

- 에센시아(주)는 전체 외형을 직선과 곡선으로 조합한 심플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칫솔 살균외에도 면도기, 렌즈, 치아교정용품 등도 살균소독할 수 있는 다용도의 기능을 갖춘 칫솔살균기를 개발하여 판매개시 11개월만에 6억 3천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음.

현재 이 회사가 보유중인 의장권은 4건이며 현재 출원중인 건수도 8건에 이르고 있음.

- 특허청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의장등록출원 열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의장등록출원의 심사처리기간을 현재 9.6개월에서 2002년 중에 8개월까지 대폭 단축하여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디자인의 조기권리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지식재산권을 지켜라’

일본정부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일본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올초 국정연설에서 지적재산전략회의 설치를 표명한 이후 지난 3월 총리와 관계장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적재산전략회의를 발족시켰다. 또 발족 3개월만인 지난 14일에는 50개 항목의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콘텐츠관련 업계도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난무하고 있는 불법복사품을 추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가 지적재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일본제조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지적재산이 일본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부문에서 일본에 밀린 미국은 이미 지난 70년대 말부터 지적재산 중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산업기술혁신정책에 관한 대통령교서’를 비롯, 82년 특허공소심 창설, 85년 영리포트, 88년 포괄무역법 등을 통해 지적재산 중시정책을 강화해왔다.

일본정부가 내놓은 지적재산전략회의의 행동계획은 대학교수의 실적을 특허취득에 의해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나 산업스파이대책, 모방품대책 등 50개 항목을 담고 있다. 늦어도 2003년 정기국회 때까지 지적재산기본법안을 제출하고 전략부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05년까지 지적재산제도의 개혁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전략회의의 행동계획의 중점목표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인재육성이다.

지적재산 창조를 위해 대학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대학은 ‘상아탑’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에 기술을 이전해 수익을 올려준 교수에게 연구비를 중점적으로 배분할 방침을 천명했다. 산학협동을 추진하거나 자치단체와 국립대학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제완화나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지적재산보호 대책과 관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해 산업스파이 대책을 강화한다. 특허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심사관을 확충하는 등 2005년까지의 체제정비 계획을 금년중 마련해 ‘2006년 이후 세계 최고수준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특히나 신중농산물의 권리침해상품의 유입을 세관에서 기동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법을

정비하거나 운용개선에도 착수한다.

활용책으로서는 2004년까지 네트상의 저작권 계약시스템을 개발한다. 인재육성에서는 2004년 개강 예정인 법과대학원에 기술분쟁에 강한 변호사 등을 육성하기 위해 이수과목이나 사법시험제도에 포함시킨다. 기술이전 전문가나 변리사를 육성하는 전문직대학원의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콘텐츠업계도 이같은 정부움직임에 맞춰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 등의 모방품 및 해적판 퇴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일본 콘텐츠업계는 오는 7월4일 불법복사품 퇴치와 정품보급 확대를 위해 '콘텐츠산업 해외진개촉진 컨소시엄'을 발족시킨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불법복사품 퇴치대책 마련을 위한 조직인 '국제지적재산보호 포럼'을 발족시켰다.

이같은 대책의 1차 대상국은 중국이다. 음악 콘텐츠의 경우 국제레코드산업연맹(IFPI)의 2001년 조사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나도는 레코드, CD의 90%가 해적판이다.

이밖에 홍콩 50%, 대만 45%, 한국도 25%가 해적판으로 조사됐다.

또 동아시아에서 나도는 해적판 레코드, CD의 30% 정도가 일본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음악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소프트의 대부분이 불법복사돼 장당 1000~2000원(한국 원화환산) 수준에 팔리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레코드협회,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등 업계단체와 출판사, 방송국 등이 참가해 발족할 컨소시엄은 해적판 실태조사 이후 정부간 협의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

주도권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해적판 구축작업과 함께 정품보급을 늘리는 전략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품보급확대는 해적판 구축뿐 아니라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동아시아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특허’가 신기술 걸림돌

서울대 의대 생화학교실 박상철(朴相哲) 교수팀은 96년 말 혈중 호르몬인 'DHEA'가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청은 2년가량이 지난 후에야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나 99년 미국에서는 박 교수팀이 신청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 특허 등록되고 각국에서 잇달아 특허를 받아 박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쓸모 없게 돼 버렸다.

개인사업을 하는 A씨도 지난해 새로운 놀이기구를 개발해 신제품까지 만들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6개월 이상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사이 다른 업체가 비슷한 기구를 개발해 파는 바람에 투자비만 날렸다.

특허청의 느장 처리로 특허 실용신안 등 신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외 전체 특허출원은 28만9000건으로 세계 5위, 국제특허건수 비교의 주요 지표인 'PCT 국제출원'에서도 지난해 8위를 차지했다.

특히 특허출원 증가율은 지난 4년간 연평균

69.4%나 돼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특허 한 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난해 평균 21.3개월로 프랑스 8개월, 독일 10개월, 미국 13.6개월 등에 비해 훨씬 길다.

더욱이 올해 24개월, 2005년에는 32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돼 갈수록 특허기술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체에서는 특허심사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허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투자결정을 하지 못해 다른 나라 업체와의 경쟁에서 크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심사관 1명당 한 해 심사 건수가 303건으로 미국 70건, 유럽연합(EU) 59건, 일본 203건 등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심사관 1명이 담당하는 기술 분야도 미국 17개, 일본 62개, EU 60개인데 반해 한국은 182개나 돼 심사의 전문성,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특허심사는 신속 정확해야 기술개발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데 우리 특허행정 서비스는 두 부분 모두 미흡하다”면서 “특허는 모든 내용이 규명되기 전에도 ‘아이디어 특허’를 인정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창조적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백만기(白萬基) 변리사는 “21세기 지식경쟁 사회에서 신속 정확한 특허행정서비스는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라며 “제품과 기술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상황에서 특허처리 행정이 늦어지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국내 상표권자 허락없이 상품 수입못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심판기준을 마련, 이에 맞지 않는 수입은 중지시키기로 했다.

병행수입이란 해외 인기상품을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한 세계적으로 통일규범이 없고 국내 법원도 명시적인 판단기준이나 판례를 내놓은 적이 없어 논란을 빚어왔다.

무역위는 자체 심판기준으로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 등록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비(非)동일성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 제조, 판매 ◇국내 상품과 병행수입 상품간의 품질 동일성 ◇국내 상표권자의 독자적인 신용 형성 등 5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무역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미국 블리자드사의 게임소프트웨어인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를 병행수입하는 비엔티 뉴잉턴터랙티브 등 2개사가 국내 상표전용사용권자인 한빛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 즉각 수입을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무역위는 한빛소프트가 ◇올해말까지 유효한 상표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했고 ◇블리자드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않아 독점 이익의 우려가 없으며 ◇국내에서 별도의 제작과정을 거친 데다 ◇병행수입품보다 품질과 애프터서비스가 우수하고 ◇전용 웹사이트와 서버 콜센터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독자 신용을 확보한 점 등을 인정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향후 병행수입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5가지 기준을 모두 검토하되 제품과

시장환경이 특수한 경우엔 일부 기준만 충족해도 지재권 침해로 판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통신업계 특허경쟁 "업체마다 큰 차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국내 통신서비스 업체들은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하고 특허 등록 및 출원 건수가 1개 밖에 없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통신업계 전문가는 "수십억원을 들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누군가 나타나 특허 침해를 주장한다면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며 "무선인터넷 등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특허에 특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통신업체 간 특허 소송도 최근들어 빈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신세기통신이 보유한 '주파수변환시스템 기술과 관련, KTF와 LG텔레콤이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쟁업체들이 한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 적용되는 핸드오프 기능을 신세기통신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KTF와 LG텔레콤이 특허를 인정하고 해당되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F와 LG텔레콤은 현재 이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 KT SK텔레콤 특허 출원 및 등록 1000건

넘어=KT는 지난 90년부터 특허 전담부서인 특허관리실(현재는 특허부)을 두고 특허업무를 관장하는 등 특허 확보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KT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 특허 등록 1302건, 해외 특허 등록 99건 등 1401건이며 상표권은 국내외 합쳐 846건,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건수는 1981건에 달한다.

KT 김중시 특허부장은 "민영화되면서 앞으로는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양적인 특허 출원 경쟁보다 양질의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장은 또 연구원들에게 발명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전 직원의 아이디어에 대한 발명상담과 발명장려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94년 국내 26개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60개의 국내 특허를 등록했으며 1309개의 국내 특허를 출원 중이다.

여기에 해외 특허등록 19건, 해외 특허출원 144건이 보태진다.

SK텔레콤 신승국 법무팀장은 "우리가 등록한 특허를 이용해 경쟁업체들이 활용하는 기술도 몇 가지 있다"며 "최근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수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특허 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팀장은 또 "단순한 통신 수단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아직도 발굴해낼 특허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이콤은 국내 특허등록 59건과 해외 특허등록 1건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네트워크에서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갱신하는 방법 등 일반기술 특허로 출원중인 것

이 44건이고 인증 및 빌링 서비스 방법, 웹하드 서비스 방법 등 비즈니스모델 특허 출원 건이 12건이다.

해외 특허 1건도 출원 중이다.

- ◇ 후발 통신사업자들 '특허 있다 명함 내밀기도 쑥스러워'=기간 통신업체 중에는 하나로 통신이 특허를 가장 적게 보유한 곳으로 꼽힌다.

하나로통신은 유선통신에서 송신자에 따라 벨 소리를 틀리게 설정하는 '멀티벨 서비스를 특허가 유일하다' 최근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한 KTF는 44건의 국내 특허와 3건의 해외 특허를 각각 등록했다.

KTF의 주요 특허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여론 조사 시스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이동통신시스템의 단말기 위치 추적방법, 멀티 기능을 갖는 폴더형 휴대폰 등이다.

KTF 김성배 법무팀장은 "최근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 적잖게 벌어진다"며 "앞으로의 사업 영위를 위해 특허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현재 11건의 국내 특허를 등록했으며 194건의 특허를 출원 중이다.

서로 다른 통신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기종 망간 로밍시 홈망과 전송되는 트래픽을 최소화해 각 망간에 설정되는 회선을 줄일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특허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기종 망간의 로밍 장치 및 방법이 대표적이다.

온세통신은 현재 '전화번호 자동다이얼링 장치의 사업자 식별번호 보호방법, '국제 및 시내·외 통화시 통화가 끝나면 추첨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즉석 서비스) 등 2개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5개의 특허를 출원중이다.

두루넷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위한 가입자 허브장치, 정보통신망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통신망의 설비관리 시스템과 그 방법 등 3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해왔다

출처 머니투데이

의장·상표에도 월드컵 열풍

21세기 첫 세계 축구제전인 제17회 월드컵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의장·상표 분야에도 월드컵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가 확정된 1996년 이후 월드컵이나 축구 등과 관련된 의장은 모두 217건이 출원됐다.

연도별로는 1996년 8건, 1997년 6건, 1998년 12건, 1999년 22건, 2000년 31건, 지난해 76건, 올해 상반기 중 62건이 각각 출원돼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또 관련 상표 역시 같은 기간 273건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많이 출원된 상표는 '붉은 악마' (115건)였고 그 뒤를 '리베로' (32건), '월드컵' (27건), '태극전사' (21건), '슛골인' (20건) 등이 이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함으로써 한껏 고조된 축구열기에 편승해 의장·상표 분야에서의 이 같은 추세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붉은 악마' 등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소비자가 월드컵조직위원회나 붉은 악마 응원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등록 거절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통단말기 '특허판매' 붐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들이 대만과 중국, 한국 등의 컴퓨터 및 가전 업체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특허를 판매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휴대폰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대만과 중국 등의 업체들이 휴대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세미컨덕터 비즈니스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올해 초 미국 모토로라와 스웨덴의 에릭슨에 이어 최근 네덜란드의 필립스, 독일 지멘스, 심지어 일본 휴대폰 1위 업체인 NEC까지 휴대폰을 조립할 수 있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특허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 이들 중에 네덜란드의 종합전자회사 필립스는 최근 중국 노트북PC 및 휴대폰 업체인 닝보 버드 앤드 캐피털에 2.5세대(G) 일반 패킷무선서비스(GPRS) 방식의 휴대폰 특허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그동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분야의 협력관계를 앞으로 GPRS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미국 모토로라도 최근 대만의 벤크에 수백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최첨단 2.5G GPRS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벤크는 대만 최대 컴퓨터 업체인 에이서가 휴대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이번에 세계 휴대폰 2위 업체인

모토로라를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앞으로 휴대폰 시장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 스웨덴의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도 휴대폰 기술판매에 적극적이다. 이 회사는 최근 휴대폰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 자회사(에릭슨모바일플랫폼)까지 설립했다. 에릭슨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LG전자에 2.5G 및 3G 비동기 표준을 동시에 지원하는 최첨단 GPRS/UMTS 듀얼모드 휴대폰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또 대만의 GVC와도 GPRS 이동전화 플랫폼을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등 최근 특허 마케팅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GVC는 가전 및 휴대폰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에 에릭슨과 계약으로 자사 휴대폰 개발·생산에 이통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에릭슨의 플랫폼을 사용할 예정이다. 데이브 수 GVC 사장은 “에릭슨의 첨단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해 신제품 개발일정을 대폭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 이밖에 일본 휴대폰 1위 업체인 NEC도 최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휴대폰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제휴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휴대폰 분야 특허 마케팅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 홍콩에 있는 시장조사회사 BDA의 통신 애널리스트 테드 딘은 “최근 전세계 휴대폰 업체간에도 기술개발 및 제조, 마케팅 등으로 전문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휴대폰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대만과 중국 등 아시아권 업체들이 대거 휴대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동남아

시아지역이 90년대 PC처럼 휴대폰 분야에서도 곧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출처 전자신문

국내 상표권자 허락없이 상품 수입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심판기준을 마련, 이에 맞지 않는 수입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병행수입이란 해외 인기상품을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한 세계적으로 통일규범이 없고 국내 법원도 명시적인 판단기준이나 판례를 내놓은 적이 없어 논란을 빚어왔다.

무역위는 자체 심판기준으로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 등록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비(非)동일성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 제조 판매 ◇국내 상품과 병행수입 상품간의 품질 동

일성 ◇국내 상표권자의 독자적인 신용 형성 등 5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무역위는 이를 근거로 미국 블리자드사의 게임 소프트웨어인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를 병행 수입하는 비엔티 뉴잉턴인터랙티브 등 2개사가 국내 상표전용사용권자인 한빛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 즉각 수입을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무역위는 한빛소프트가 ◇올해말까지 유효한 상표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했고 ◇블리자드와 동일한 관계에 있지 않아 독점 이익의 우려가 없으며 ◇국내에서 별도의 제작과정을 거친 데다 ◇병행수입품보다 품질과 애프터서비스가 우수하고 ◇전용 웹사이트와 서버 콜센터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독자 신용을 확보한 점 등을 인정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향후 병행수입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5가지 기준을 모두 검토하되 제품과 시장환경이 특수한 경우엔 일부 기준만 충족해도 지재권 침해로 판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발특2002/8

